기아차 쏘울

함평군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08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원들. 회원들은 국화 가꾸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일의 지도

청포 돗단배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국향에 빠지다

■ 대한민국 국화 동호회

양동원(48·기아자동차 광주공장)씨는 요즘 국화 향기에 푹 빠졌다. 함평으로 '꽃 구경'을 다니면서다. 지난달 29일부터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

함평군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리는 '2008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찾아 국화로 물들어 있는 공원(50만㎡)을 한참 돌아다니다보면 진한 향기를 내뿜는 국화향에 흠뻑 취하기 일쑤다.

꽃구경 하겠다고 매일 광주에서 함평까지 출근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시된 수백여개의 국화 작품을 설명하는 자원 봉사자, 양씨가 맡은'임무'다. 자신이 만든 '쏘울'작품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는 관광객들을 보는 기쁨은 덤이다.

꽃집을 하는 것도, 식물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다. 하지만 빤히 쳐다

순수 자생 연구 동아리서 전국 규모 모임 성장
함평농기센터,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교육
다륜대작 '쏘울'·현애작 등 명품 국화 키워내

보는 관광객들 앞에서 도움말을 들려주는 수준은 전문가 못지 않다.

양씨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회장이다. 국화동호회는 국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순수 자생 연구동아리로, 지난 2005년 3월 공식 출범됐다. 회원 대부분이 국향 대전을 찾았다 명품 국화작품에 반해 버렸다.

동호회 박상희(여·37)총무는 "나무 위에서 국화를 키워낸 목부작, 암석 위에 뿌리를 붙여 키워낸 석부작, 진귀한 모양으로 멋을 낸 국화 분재가 그렇게 멋질 수 없었다"고 했다.

"어떻게하면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해봤는데 꽃도 안 피던데…."라며 한두번 물어보다가 차라리 직접 해보자며 참가한 회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모인 회원들만 전국적으로 2천850명이다. 대기업 직원·자영업자·교사 등 직업도 다양하고 함평을 비롯, 광주·서울·경기·경남·경북 등 전국에서 고루 분포돼 있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선, 지역 소규모 동호회로 출발한 지 3년 남짓. 이제는 전국적인 대규모 모임으로 성장한 것.

동호인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은 멋지게 키워낸 국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기름값과 시간들여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온 것이다.

국화를 키우는 과정은 3월께 길이 10㎝ 정도의 조그만 국화 분재 모종을 회원들이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받는 것부터 시작된다. 보통 매월 첫째, 세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론과 실습 교육을 거쳐 스스로 키워나가는 작업에 들어간다. 무릎을 꿇고 풀같은, 가느다란 줄기를 보듬아가며 철사를 동여매거나 풀고 철사 두께를 바꿔가며 틀을 잡다보면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간다고 한다.

주책 떤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많다. 자식 키우냐는 것이다.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찾아가 밤 늦게까지 가느다란 국화 줄기 지켜보며 씨름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럴때마다 회원들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맛을 모른다"고 말하고 다닌다. 바위 위에 붙여놓은 실같은 국화 뿌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아찔할 수 없고 한 그루에서 자신이 생각하던 대로 꽃송이가 피어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쁠수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권하는 이유는 또 있다. 국화를 들여다보다보면 급한 성격도 차분해지고 산만한 사람들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입비 2만원만 내면 1년 내내 비료, 농약값 걱정 없이 국화를 가꿀 수 있다는 점도 동호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특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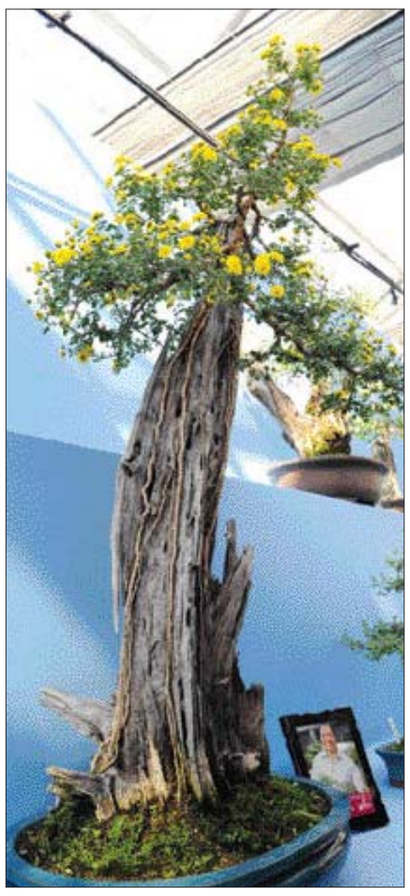
정성을 쏟다보면 회원들간 경쟁심도 발동한다. 여름철 땀 흘리고 모기에 뜯기면서도 다른 회원들보다 조금 더 멋진, 더 예쁜 꽃을 피워내고 싶다는 욕심이다. 이러다보니 지정된 교육 날짜 외에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찾게되고 아예 일정 기간을 머무르며 국화를 돌보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들이 올해 국향대전에 출품된 작품들이다. 기아차 '쏘울' 형태로 제작된 작품, 한 그루에서 500송이 이상의 꽃송이를 피워낸 다륜대작, 절벽에 매달린 것처럼 꽃을 혀 모양으로 늘어뜨린 현애작 등 293여점에 달한다.

연간 15차례 실시되는 교육 중 10차례 이상 참가한 회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른바 '작품 전시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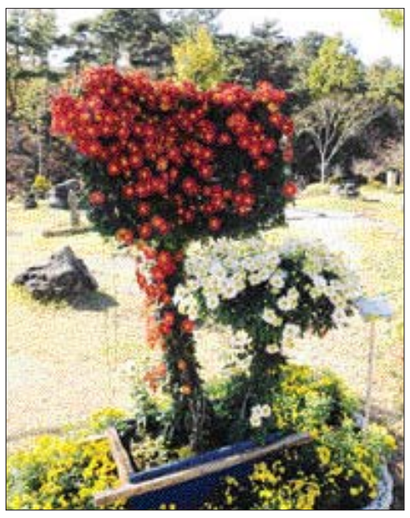
양 회장은 "전시된 작품을 보려는 회원들의 가족이 서울·경기·강원 지역에서도 찾아온다"면서 "잘 키운 동호회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함평=김지을·박영진 기자 dok2000@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화 분재

삶의 휴식공간



독서하는 계절